

# 청소년자녀와 어머니를 위한 세대간 이해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 A Program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Enhancing to Understand Generations between Adolescent Children and Parents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 수 김명자 · 이정우 · 계선자 · 박미석  
박사 후 연구원 송 말 희  
연구원 김경아 · 박수선 · 유을용 · 정진희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essor* : Myung-Cha Kim, Jeong-Woo Lee, Sun-Ja Kye, Mee-Sok Park  
*Post-doc.* : Mal-Hee Song  
*Researcher* : Kyung-Ah Kim, Su-Sun Park, Eul-Yong Yoo, Jin-Hee Jeeing

### ◁ 목 차 ▷

- |               |             |
|---------------|-------------|
| I. 서 론        | V. 프로그램 평가  |
| II. 프로그램 개발배경 | VI. 결론 및 제언 |
| III. 프로그램 개발  | 참고문헌        |
| IV. 프로그램 실시   |             |

###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children and parents has a profound effect on not only the adolescents development into healthy adults but also the psychological welfare of the parent. A program focused to improve adolescents relationship with parents has not been developed until now. To achieve the educational goals enhancing mutual understanding, it is more effective to educate both the parents and adolescent children. Thus, this study developed and carried out a program in which adolescent children and mothers, being fully in charge of raising children, participated.

The study analyzed the program effects after implementing on 6 pairs of adolescent children and mothers.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adolescent children and mothers placed high values on the fact that they can

---

Corresponding Author: Mal-Hee Song,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ChungPa- Dong, YongSan-Gu, Seoul, Korea. Tel : 82-2-710-9185 E-mail: Malhee@hananet.net

understand each other well, 2) both parties accepted each other by recognizing the inevitability of the generation gap, and 3) the program gave them a chance to admit that they should try to communicate openly.

Most of all, adolescent children could find self-confidence while mothers could collect valuable data essential to raise children and build a new mother's role model adapting to social changes.

**주제어(Key Words):** 프로그램(Program), 프로그램 요구도(Need for the Program)

## I. 서론

청소년기는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며,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혼란의 시기이다. 또한 진로문제, 이성문제 등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일차적인 지원자요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지지세력은 부모이다. 즉 부모는 청소년들이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이루도록 조장하거나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며(권이중, 2000), 청소년의 성격형성과 삶의 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현은민, 2000). 따라서 청소년자녀와 부모간의 관계의 질은 곧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 발달과업 성취 나아가 건전한 성인으로서의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Gecas & Seff, 1990; Schvaneveldt & Young). 그리하여 선행연구들은 부모-자녀관계의 질은 자녀의 심리적 복지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Umberson, 1989), 부모와 자녀는 서로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서로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부모의 자녀에 대한 많은 자율감과 자유인정은 자녀들의 자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즉 부모와의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통해서 자녀들은 건강한 정서적, 심리적 발달을 위해 요구되는 자기수용이나 자기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Stice · Barrera & Chassin, 1993).

그러나 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부모들은 여전히 전통적이고 권위적인 가치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자녀들을 통제하고 부모의 생활태도를 훈련시키며 부모에게 복종하기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아서(손승영, 2001; 한국사회학회, 1994), 자녀양육에 대한 생각이나 이념은 민주적이거나, 실제 행동은 여전히 권위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들은 점차적으로 독립하여 자율성을 획득해 나가면서 이전의 부모-자녀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관계패턴을 요구하여, 민주적인 부모-자녀관계를 지향한다(김애순 · 윤진, 1997; 이지현, 1999; 이춘재 등, 1997). 그에 따라 청소년자녀들은 부모의 절대적 권위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반항하며 부모의 일방적이고 명령적인 의사소통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며(김현주, 2001; 백양희 · 최외선, 1997), 특히 부모가 청소년의 자율을 인정하지 않고 소유와 보호의 태도를 보이는 것을 문제로 여긴다(김희진 · 김경호, 1999, 한국청소년개발원, 1994). 또한 부모들이 청소년기의 다양한 발달과업에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는 반면 학업에만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그들의 청소년 문화에 대한 몰이해 역시 청소년자녀와의 갈등을 낳게 된다(권이중, 2000; 한국사회학회, 1994). 특히 청소년자녀들은 학업에 있어서 부모들이 달성하기 힘든 목표성취를 기대하거나 강요하고, 만능인이 되기를 기대하는 대리성취 욕구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김명자, 1994; 엄명용, 2000).

이러한 부모-자녀간의 갈등은 곧 정서적 유대의 단절이나 가족의 결속을 약화시키게 되고, 청소년 자녀의 우울증이나 낮은 자존감 등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가져오며(Cicchetti & Toth, 1998), 자녀는 부모와 거리감과 소외감을 느껴 또래집단과의 관계에 맹목적으로 몰입하게 되고 학교생활의 부적응 나아가 비행행동을 가중시켜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된다(이영숙 · 박경란 · 전귀연, 1999; 전귀연, 1996; 정영숙 · 김영희 · 박경옥 · 이희숙 · 채정현 · 이종섭, 1999; Baumrind, 1993; DeBaryshe · Patterson & Capal, 1993). 따라서 청소년기의 특성을 이해하고 청소년기 자녀의 입장에 대한 이해증진을 돕는 부모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는 부모와 청소년자녀 간의 단절과 갈등을 가중시킨다. 즉 정보화 사회에서는 부모세대의 경험과 지식이 자녀세대에게는 더 이상 유용한 것이 되지 못하며(김경신, 1999; 김은미, 1999), 청소년 자녀는 사회의 변화를 빠르게 수용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생활하는 반면, 부모는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보다 기존의 사고를 고수함으로써 청소년 자녀와 부모간에는 과거보다 더 큰 세대차이가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 갈등이 증가하게 된다(김경신, 1999; 변화순, 1997; 한국청소년학회, 1999; Anne·Steinberg & Sella, 1999; Daniel, 1997). 그리하여 부모가 사회의 변화에 대해 융통성 있게 부응하지 못할 경우, 청소년자녀의 발달적 변화요구를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자녀와 갈등을 겪게 될 뿐 아니라, 청소년 자녀에게 불안과 우울 같은 정서적 문제를 안겨 주게 된다(전귀연, 1996). 따라서 부모세대가 사회변화와 청소년자녀의 변화상황을 인식할 수 있고 청소년자녀와의 정보공유를 돕는 프로그램개발이 매우 시급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변화에 따른 부모의 양육행동의 변화를 도와 부모-자녀간에 갈등을 줄이고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지금까지 청소년 자녀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상당수 개발되었으나(김순옥, 1997; 김순옥·송현애, 1998; 송정아·윤명선, 1997; 유은희, 1998; 유은희·홍숙자, 1998; 등) 청소년과 그 부모가 함께 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다. 부모와 자녀의 유대감 증진과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과 부모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실제 자녀양육을 거의 책임지고 있는 어머니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부모들은 현대사회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발달과업 성취를 돕게 될 것이며, 청소년들은 부모의 이해와 지지 속에서 자아정체감을 확고히 하게되어 건전한 발달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곧 청소년문제의 예방 및 치료, 가족의 결속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건전한 청소년문화창조와 사회전체의 건전화와 안녕에 이바지할 것이다.

## II. 프로그램 개발배경

### 1. 청소년기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

송인자와 김경혜(1999)는 청소년기가족은 부모와 자녀 모두 혼란과 변화를 경험하게 되므로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정체감 확립과 자아의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부모는 자녀를 성인이 되기를 준비하는 인격체로, 자녀는 부모를 부족함이 있지만 완전을 향해 노력하는 인격체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곧 청소년자녀에게는 1차 정체감 확립을, 청소년 자녀를 둔 중년기 부모에게는 2차 정체감 확립을 돕는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Small과 Eastman(1991)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변화와 청소년기 특성의 변화는 청소년자신뿐 아니라 청소년자녀의 부모에게도 똑같은 어려움을 가져다주게 되므로 청소년자녀를 위해서는 위기극복을 도와줄 수 있는 교육이, 청소년자녀를 둔 부모를 위해서는 자녀양육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건전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권이종 등(2001)은 청소년 문제를 사후 해결하는 방식에서 사전 예방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부모-자녀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여야 한다고 했다.

한편 몇몇 연구들(Lamanna & Riedman, 1994; Roberts, 1994)은 자녀들이 청소년기가 되면 신체적 성숙, 지적 발달, 사회적 능력의 향상 등으로 부모들은 이전과는 다른 부모역할의 시기가 됨을 지적하면서 특히 청소년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즉 자녀들은 청소년기에 취업, 진학 등과 같은 중요한 선택들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시기에 부모들은 관련된 대안들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자문자로서 그리고

책임을 할당하고 자립심을 자극하며 자녀의 능력과 동기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상담자로서, 그리고 자녀들이 미래에 겪게 될 위기, 책임, 발달 등을 미리 준비시키는 미래를 예견하는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다양하고 중요한 부모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머니 스스로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재빨리 수용할 수 있어야만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교육에의 참여가 요청된다는 것이다.

최규련(1996)은 청소년자녀와 그 가족을 위한 교육내용에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방법과 친밀감 유지방법, 애정적 자율적인 훈육방식, 올바른 성, 갈등과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 자존감 향상, 분노 조절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권이종 등(2001)은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성취를 위한 교육에서는 성문제, 이성교제, 배우자선택, 결혼, 가족의 중요성 및 가족관계, 부모역할, 의사소통기술, 성역할, 직업준비, 사회인으로서의 역할 등이 다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들은 대부분이 청소년 개인의 자아탐색과 여가 생활 등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김영희 등(2000)은 우리나라의 청소년 프로그램은 일상생활을 관련시키는 내용이 거의 없는 실정임을 지적하면서 청소년들의 개인적인 영역뿐 아니라 그들이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있는 가족, 학교, 친구, 소비경제 등을 다룸으로써 그들이 생활인으로 건전한 발달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청소년자녀가 있는 가족은 다른 가족주기상의 단계에 비해 갈등이 많으며, 상담가족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므로(최규련, 1996), 세대차이의 필연성에 대한 수용과 서로의 발달과업의 차이에 대한 이해 등을 통해 서로가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가 필요하며(김명자 등, 2000a, 2000b; 이정우 등, 2000),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세대간의 갈등과 단절을 극복해야 한다(한국청소년학회, 1999).

특히 청소년자녀와 부모간에 갈등이 많은 이유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청소년자녀와 대화를 나누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므로 자녀와의 대화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권이종, 2000; 김용석·박명숙, 2000), 청소년들도 부모와의 대화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고(조홍식, 1995), 오늘날의 정보화 시대에서는 의사소통방식의 변화로 인하여 부모와 청소년 사이의 대화가 더욱 부족한 실정이므로(김경신, 1999), 청소년자녀가 있는 가족을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간의 개방적인 대화를 위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간의 개방적인 대화와, 갈등해결을 위한 교육내용이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가족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 생각되며, 이런 가족'관계'를 다루는 프로그램은 각 세대를 개별적으로 교육하기보다는 양세대가 함께 할 때 그 교육적 효과가 향상되리라 생각된다. 송인자와, 김경혜(1999)도 기존의 가족관련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가족원 1인만을 대상으로 실시됐던 점을 지적하면서 가족관련 프로그램은 가족이 함께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주장하여,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교육을 받을 때 가족 내 갈등을 극복할 수 있으며 가족성원간의 공동체 의식과 결속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본 프로그램에서는 부모와 청소년자녀가 함께 하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부모-자녀간의 개방적인 대화를 통해 갈등해결을 돕고, 유대감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한편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부모들은 변화된 부모역할을 요구하는 새로운 환경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즉 지식의 급속한 변화, 정보의 급증 등과 같은 현대사회의 일련의 변화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부모를 요구하고 또한 부모자녀관계가 과거의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영향력이 일방적으로 흐르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관계로 변화하게 되면서, 미래의 부모들은 대화를 이끌어 가는 부모,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는 부모,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부모, 늘 공부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모들이 이런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급히 개발·실시되어야 한다.

2. 청소년과 부모의 프로그램 대한 요구도

본 연구에 앞서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로 전국의 고등학생 1, 2학년과 그 부모 중 1인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발달과업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 <표 2>와 같다. <표 1>은 청소년과 부모의 평균값에 의한 요구도 우선순위이며, <표 2>는 청소년에게는 가장 참가하고 싶은 교육내용을 한가지 기입하게 하고, 청소년 부모에게는 자녀에게 꼭 참석시키고 싶은 교육내용을 한가지씩 기입하게 한 결과로 나타난 상위 3위의 교육내용이다.

<표 1>,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과 부모 모두 적성에 알맞은 진로선택에 대해 가장 높은 요구도를 나타내, 청소년의 적성에 알맞은 진로를 모색하여 미래를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동아일보, 1999, 11, 16).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모들이 자녀에게 자신의 대리성취욕구를 계속 강요하는 한 자녀들이 자신의 적성을 살리는 진로를 선택하기란 불가능하므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를 현실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엄명용, 2000)과 부모가 자녀와 함께 참여함으로써 자녀들이 진정 원하는 진로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프

그램의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청소년기 발달과업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고 부모입장에서도 높은 요구도를 보인, 청소년의 성·이성교제를 다루는 프로그램 개발도 시급하다.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인한 자녀의 학업장애와 그 외의 부작용 등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염려로 청소년자녀와 침례하게 대립되는 성·이성교제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자녀와 부모와 함께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부모가 자녀의 이성교제에 대해 융통성 있는 태도를 갖도록 하고 자녀는 책임감 있는 이성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주은희, 2001).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본 프로그램에서는 청소년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세대차이 수용을 통한 세대간 이해증진의 내용과,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의사소통 내용, 그리고 프로그램 요구도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던 진로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또한 성·이성교제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부모가 자녀의 이성교제에 대해 보다 융통성 있고 긍정적인 자세를 갖도록 하며, 청소년자녀도 건전한 성의식을 확립하여 앞으로 건전한 이성교제를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한편 요구도 조사에서 청소년과 부모 모두 자신

<표 1> 평균에 의한 청소년과 부모의 프로그램 요구도 우선순위

	청소년	M	SD	청소년 부모	M	SD
1위	적성에 알맞은 진로(진학)선택	4.22	.88	적성에 알맞은 진로(진학)선택	4.30	.81
2위	친밀한 친구관계 맺기	3.92	.96	바람직한 가치관 정립	4.13	.79
3위	자신에게 알맞은 여가활동개발	3.88	.93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신감 구축	4.10	.85
4위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신감 구축	3.85	.94	친밀한 친구관계 맺기	4.05	.87
5위	스트레스의 건전한 해소방법	3.81	.96	건전한 성의식 함양 및 건전한 이성교제	4.01	.86

<표 2> 청소년과 부모가 참석하고(참석시키고) 싶은 프로그램 요구도 우선순위

	청소년	%	청소년 부모	%
1위	적성에 알맞은 진로(진학)선택	36.1	적성에 알맞은 진로(진학)선택	21.4
2위	스트레스의 건전한 해소방법	7.8	바람직한 가치관 정립	17.4
3위	친밀한 친구관계 맺기	7.1	부모와 벽이 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술(방법)	13.2

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신감 구축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고, 청소년자녀와 부모 모두 혼란과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므로,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정체감 확립과 자아의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자기탐색과 자기이해를 통해 자아존중감을 구축하는 내용을 기초교육으로 포함시켰다.

그 외의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던 교육내용들은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실시하였으며, 추후연구를 통해 발표하고자 한다.

### III. 프로그램 개발

#### 1. 프로그램의 목표

본 프로그램은 청소년자녀와 그 부모를 대상으로 출생동시집단의 차이에 따른 세대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여, 어머니와 청소년자녀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화합을 도모하고자 한다. 본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서로에게 비친 나의 모습에 의한 자아재평가를 통해 청소년자녀와 어머니가 자아존중감을 높여 생활에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
- 2) 청소년자녀의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관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어머니 역할에 대해 모색해 보고, 청소년자녀의 건설적인 미래생활 구축을 도와주도록 한다.

- 3) 청소년자녀와 어머니가 서로간의 성에 대한 인식 차를 수용함으로써 상대 세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 4) 청소년자녀와 어머니가 세대차이를 수용함으로써 가족의 화합을 이룩하여 가족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의 안정과 통합에 이바지한다.
- 5) 청소년자녀와 어머니가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여 건설적인 갈등해결에 도움을 줄뿐 아니라,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친밀한 관계 형성을 돕는다.

#### 2. 프로그램의 개요

연구원들이 공동으로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을 정하고, 각 단계의 순서를 정한 후에, 각 단계는 그 분야의 전공자들이 개발을 담당하였다. 1단계는 인간관계훈련의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연구원이 개발하였으며, 청소년 성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연구원이 3단계를, 시간관리에 대한 전공자가 2단계를, 가족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연구원이 4, 5단계

〈표 3〉 프로그램의 개요

단 계	내 용	
1	자아존중감의 증진 "서로에게 비친 나"	어머니와 청소년자녀는 서로에게 비쳐진 모습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확인하고, 이를 통해 자아존중감을 신장시킨다.
2	자녀의 적성에 맞는 진로탐색 "함께 만들어 가는 내 꿈"	청소년 자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꿈을 받아들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서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모색해본다.
3	올바른 성지식, 건전한 이성교제 "함께 생각하는 성"	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고, 서로간의 이성교제에 대한 인식 차를 수용한다.
4	세대차이의 수용 "따로 또 같이"	인생주기에 따른 발달과업의 차이를 인식하여, 서로가 세대차이를 수용한다.
5	개방적인 의사소통 "벽이 없는 우리"	의사소통에 대한 이해증진과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하여, 세대간의 친밀한 관계형성을 돕는다.
종 결	* 어머니는 자녀에게, 자녀는 어머니에게 편지쓰기 *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질적 인터뷰 * 서로에게 감사의 인사 나누기	

를 개발하였다. 모든 단계의 내용이 구성된 후에 연구원들 모두의 토론을 거쳐 각 단계의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내용을 수정하였다.

#### IV. 프로그램 실시

##### 1. 프로그램 실시대상

프로그램의 실시를 알리는 홍보자료를 청소년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고, 서울시와 경지지역의 10개 고등학교에 홍보자료와 함께 교사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자원자들을 모집하였다. 여학생과 남학생이 함께 참여하여야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개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 여고와 남고 각각 8개교씩 선정하여 홍보자료를 발송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자녀와 어머니 6쌍이 참여를 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 참여자의 일반적 사항은 <표 4>와 같다.

##### 2. 프로그램 실시방법

본 프로그램은 숙명여대 가정경영실습관인 숙인당에서 2002년 2월 22일부터 2월 23일까지 1박 2일 동안 진행하였다.

상호학습의 원리와 참여교육의 원리를 반영하여 소집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자발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되도록 하였으며, 교육자에 의한 강의중심보다는 참석자들의 토론과 활

동중심으로 단계를 이끌어 갔다.

프로그램의 각 단계는 도입, 활동·강의, 그리고 종결단계로 구성되었고, 각 단계는 1시간 30분 - 2시간 가량 소요되었으며, 전체 프로그램의 강의내용과 활동으로 이루어진 교재를 제공하였다.

각 단계를 개발한 연구원이 각 단계의 교육자가 되었으며, 참가자들의 특성과 수업분위기를 파악하여 다음 단계를 효율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다음 단계의 교육자가 각 단계의 보조자로 참석하였다.

##### 3. 프로그램 실시

프로그램은 1박 2일 동안 <표 5>의 일정으로 실

<표 5> 프로그램 실시일정

첫째날		
오전	9시-10시	모임의 시간, 자기소개
	10시-12시	1단계 실시
오후	12시- 2시	점심식사 및 휴식
	2시- 4시	2단계 실시
	4시- 6시	3단계 실시
	6시- 8시	저녁식사 및 휴식
	8시-10시	4단계 실시
	10시-12시	오락 및 장기자랑
둘째날		
오전	8시-10시	기상 및 아침식사
	10시-12시	5단계 실시
오후	12시- 1시 30분	종결

<표 4> 프로그램 참여자의 일반적 사항

참가자	성별	학년	거주지역	형제순위	모 연령	모 학력	모 취업여부
1	남	1	서울시	2남 중 장남	47세	대졸	취업
2	남	1	서울시	2남 중 차남	44세	고졸	비취업
3	남	1	서울시	2남 중 차남	45세	고졸	비취업
4	여	2	분당	1남1녀 중 장녀	45세	대학원졸	취업
5	여	1	대전시	1남1녀 중 장녀	46세	대졸	비취업
6	여	2	인천	2녀 중 장녀	47세	대졸	취업

〈표 6〉 1단계: 자아존중감 구축 - '서로에게 비친 나'

강 의	활 동
<p>목표: 1. 청소년자녀와 부모는 서로에게 비쳐진 자신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고, 수용하도록 한다. 2. 자기 이해 및 탐색과정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수용하고, 상대방부터 의 인정과 격려를 통해 자아존중감을 확립하도록 한다</p>	<p>“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한다.</p>
<p>1. 자아존중감의 의미 2. 자아존중감 확립을 위한 자기성장의 과정 1) 자기탐색 2) 자기이해</p>	<p>1. “진정한 나는?” “산다는 것은_____이다”라는 문장에 자신을 생각해 맞는 문장을 골라 삶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인식을 판별해보는 ‘인생지각척도’ 활동지에 참가자들이 체크를 한 뒤 체크한 지점을 점선으로 연결하고 왼쪽 부분을 색칠하도록 한다. 색칠한 부분이 넓을수록 자신에 대해 건강하게 지각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색칠이 되지 않은 부분이 참가자들이 개척해 나가야 할 영역임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장점을 살리고, 부족한 면은 개척해 나가도록 하며, 청소년자녀와 부모가 생각하는 ‘나’와 ‘너’를 비교해본다.</p>
<p>3) 자기수용 4) 자기개방 ☞ 나에 대한 진정한 사랑(책임 있는 삶) ⇒ 타인에 대한 진정한 사랑 ⇒ 친밀한 가족관계, 또래관계, 행복한 나</p>	<p>2.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두 명씩 짝을 이루어 전지에 서로의 모습을 본 떠주고, 신체부위별로 “지금 내가 눈, 코, 입, 가슴, 배, 손, 발에 담고 싶은 것”을 알맞은 단어나 문장으로 꾸미게 한 뒤, 한 사람씩 발표를 하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자녀와 부모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p>
<p>종결: 1.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은 진정한 자기이해에서 비롯되므로, 자신의 장점과 단점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함을 강조한다. 2. 자아존중감의 증진은 일차적으로 가족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부모와 청소년 자녀가 서로의 장점을 북돋아 줌으로써 서로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야함을 강조한다.</p>	
<p>준비물: 이름표, 활동지, 필기도구.</p>	

시되었으며, 각 단계별 실시내용은 〈표 6〉 - 〈표 10〉과 같다.

## V. 프로그램의 평가

### 1. 프로그램 평가방법

시간적인 간격을 두어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면 청소년자녀와 어머니가 5단계를 모두 함께 참석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어, 1박 2일 동안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First와 Way(1995)가 지적했듯이 단기간에 실시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양

적으로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질적 평가를 실시하여, 양적 평가로는 밝힐 수 없는 참석자들의 다양한 경험을 밝히고 프로그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질적 평가를 통해서는, 가장 유익했고 인상 깊었던 단계나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점, 프로그램 참석을 통해 자신과 자녀(또는 부모)에 대해 새롭게 깨닫거나 느낀 점, 부모-자녀 관계를 위한 앞으로의 다짐, 프로그램의 미비점과 앞으로의 청소년과 부모 프로그램에 대한 바람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문하였다. 이와 함께 설문지를 구성하여 교육전체에 대한 만족도 정도를 100점 기준 시 몇 점인지를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매우 만족에서 매우 불



<표 7> 2단계: 자녀의 적성이 반영된 진로탐색 - '함께 만들어 가는 네 꿈'

<p>목표: 1. 자녀의 진로선택을 잘못 인도할 수 있는 어머니의 편견을 제거하고, 어머니로 하여금 청소년자녀가 원하는 진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한다. 2. 청소년자녀와 어머니는 구체적인 진로를 준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자의 역할을 모색해 본다.</p>	
강 의	활 동
<p>도입: 청소년기의 중요한 과업중의 하나인 '진로' 결정의 중요성을 설명한다.</p>	<p>"진로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들은?"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한다.</p>
<p>1. 21세기 직업선택의 변화와 대학선택</p> <p>1) 21세기 산업과 직업 2) 대학진학을 위한 준비단계 3) 진로관련 웹사이트 소개</p>	<p>1. "내가 원하는 직업은? 그 직업을 가지려면?" 활동지를 나누어주고, 어머니는 청소년 자녀가 원하는 직업이 무엇인지, 청소년 자녀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이 무엇인지를 기입한 뒤 서로 맞춰봄으로써, 부모와 자녀가 선호하는 직업에 대한 차이를 인식해본다. 또한 청소년 자녀가 그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부모와 자녀가 자연스럽게 토의함으로써 청소년자녀가 그 직업에 도전했을 때의 성공가능성을 예측해 본다.</p>
<p>2. 계획 세우기</p> <p>1) 계획의 유용성 2) 좋은 계획이란? 3) 계획의 원리 4) 계획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5) 중·단기 계획 세우기</p>	<p>2. "나는 이렇게 노력할게요." 청소년 자녀는 자신의 직업을 이루기 위한 중·단기 계획을 세워 보고, 어머니들은 자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머니로써 해줄 수 있는 3가지 약속을 적어본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을 잘 세우고 실천하는 것임을 강조한다.</p>
<p>종결: 1. 청소년 자녀는 20년 후 자신의 명함을 만들어 어머니께 소개함으로써 세웠던 계획의 실천의지를 다진다. 2. 어머니와 다른 참가자들은 청소년 자녀의 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격려 해 준다.</p>	
<p>준비물: 이름표, 활동지, 색상지, 필기도구.</p>	

<표 8> 3단계: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 '우리가 생각하는 성'

<p>목표: 1.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의 성 가치관을 알아보고 서로간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2. 청소년기의 바람직한 이성교제에 대해 알아보고 이성친구와의 관계에서 성적 자기위생결정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알아본다. 3. 나와 남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여 생각의 폭을 넓히고, 앞으로 우리사회에서 요구하는 양성적인 인간상에 대해 알아본다.</p>	
강 의	활 동
<p>도입: 성교육을 시작하며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진행 방법, 규칙에 대해 이야기한다.</p>	<p>참가자들이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지켜야 할 규칙과 주의사항을 제시한다.</p>
<p>1. 이성교제와 성</p> <p>1) 청소년기에 있어서의 이성교제 2) 이성교제의 긍정적, 부정적인 점</p>	<p>1. "저요, 저요!! 이건... 음... 이거예요"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가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빙고판에 적혀있는 성과 관련된 단어들에 맞추어가면서 성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정확한 지식을 습득한다.</p>
<p>2. 성적 의사 결정</p> <p>1) 가장 바람직한 선택은 무엇인가 2) 선택과 책임</p>	<p>2. "이럴 때 나라면 어떻게 할까?"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이성교제 상황들이 제시된 활동지를 나누어 주고 이에 대한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 각자 의견을 이야기하도록 한다. 또한 참가자들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봄으로써 의사결정 능력을 기르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힌다.</p>
<p>종결: 1.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성관련 지식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가 한 팀이 되어 적어보고 발표하면서 선정한 이유를 설명한다. 2. 성이란 자연스러운 것이며 사람마다 다양한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한다.</p>	
<p>준비물: 이름표, 활동지, 빙고판, 필기도구.</p>	

## 〈표 9〉 4단계: 세대차이의 수용 - '따로 또 같이'

강 의	활 동
<p>목표: 1. 인생주기에 따라 부모, 자녀 각각은 서로 발달과업이 다름을 이해시킨다. 2. 출생동시집단의 차이에 따른 세대차이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세대차이를 수용토록 한다. 3. 세대차이의 수용을 통해 부모-자녀간의 이해를 도모하고 화합을 돕는다.</p>	<p>“세대차이란?”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한다. 세대차이에는 긍정적, 부정적 의미 중 어떤 의미가 더 많이 내포되어 있는지 생각해보도록 한다.</p>
<p>1. 인생주기와 인생주기에 따른 발달과업의 차이 1) 인생주기와 발달과업: 여러 학자들의 주기에 따른 발달과업 ☞ 양 세대는 서로 자신들의 발달과업 수행에 힘써야 할 뿐 아니라, 상대 세대의 발달과업 달성을 도와주어야 한다. 2) 청소년과 중년기의 발달과업</p>	<p>1. “우리는 어떨 때 세대차이를 느끼는가?” “나는 부모(자녀)와 이럴 때 세대차이를 느낀다”가 기록되어있는 활동지를 나누어주고 부모는 청소년 자녀와 청소년 자녀는 부모와 어떨 때 세대차이를 느끼는지를 기입하도록 한 후, 참가자들이 돌아가면서 자신이 쓴 내용을 읽거나, 자신이 느낀 바를 이야기하도록 한다. 아울러 부모-자녀간에 세대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토론한다.</p>
<p>2. 출생동시집단의 차이에 따른 세대차이 1) 출생동시집단의 차이에 따른 세대차이 2) 부모자녀관계: 산업사회의 성원인 부모와 정보사회의 성원인 자녀 세대의 차이점 비교</p>	<p>2. 우리들의 life-line 그려보기 자신과 부모(자녀)의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적 흐름과 역사적 사건의 경험을 인식할 수 있는 life-line을 그려보도록 한 후, 참가자들이 돌아가면서 자신과 부모(자녀)의 life-line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자신과 자녀(부모)는 출생동시집단의 차이에 따라 경험하는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 세대차이의 불가피성을 수용하도록 한다.</p>
<p>종결: 1. 부모와 자녀간에 세대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다시 한번 정리함으로써 세대차이의 불가피성을 수용하도록 하며, 세대차이는 부정적인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2. 부모와 자녀가 세대차이를 수용하고, 상대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은 세대간의 벽을 허물고 부모-자녀 관계를 향상시키게 됨을 강조한다.</p>	
<p>준비물: 이름표, 활동지, 필기도구.</p>	

만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교육내용과 교육시간, 교육자, 교육시설, 교육자료 등 5영역에 대한 만족도 정도를 측정하였고, 보충되기를 바라는 교육내용과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 교육자에게 바라는 점등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 2. 평가결과

### 1)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청소년 6명과 어머니 6명의 설문지를 통한 프로그램에 대한 100점 만점에 대한 평가결과는 청소년의 경우 평균 93점, 어머니는 평균 94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5점 척도를 통한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평가결과에서도 12명의 참가자들 모두가 5점을 주어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교육자, 교육시설, 교육자료 등에 대해서도 참가자 모두가 5점을 주어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나, 교육시간 면에서는 평균 3.7점을 나타내 시간이 부족했음을 나타냈는데, 이는 질적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이 끝난 후의 질적 인터뷰에서 청소년들이나, 어머니들 모두 프로그램이 또 다시 실시되면 참석하리라는 반응을 보여 청소년과 어머니 모두에게 프로그램이 매우 만족스럽고 유익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전 애 동생 데리고 언제든지 다시 올 거예요... 다른 엄마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부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례1의 모)

<표 10> 5단계: 개방적인 의사소통 - '벽이 없는 우리'

<p>목표: 1.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은 의사소통임을 인식시킨다. 2. 부모-자녀간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위한 태도와 기술을 이해하여, 세대간의 벽이 없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토록 한다.</p>	
강 의	활 동
<p>도입: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의사소통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인간관계의 처음이자 끝은 의사소통임을 이해하도록 한다.</p>	<p>“의사소통이란 무엇인가?” 참가자들에게 ‘의사소통’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한 후, 각자 나름대로 정의해보도록 한다.</p>
<p>1. 의사소통의 의미와 중요성 1) 의사소통이란 2) 의사소통의 중요성 3) 의사소통의 유형 4) 의사소통의 구성</p>	<p>1. 일방적·쌍방향 의사소통 경험하기 일방적·쌍방향 의사소통을 경험하게 하는 세 가지 유형의 그림을 참가자 중 1인이 송신자가 되어 설명하면 나머지 참가자들은 설명에 따라 그림을 그린다. 참가자들이 송신자도 되어보고 수신자도 되어보는 과정 속에서 각자가 느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도록 한다.</p>
<p>2. 세대간의 의사소통 차이 1) 우리나라에서 부모와 자녀세대의 의사소통 유형의 차이 2) 의사소통의 장애요인들 3)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조건들</p>	<p>2. 상황극: “이럴 때 우리 엄마는...” 설정된 상황이 기술되어 있는 활동지를 나누어주고, 청소년 자녀가 부모역할을, 어머니가 자녀역할을 맡아 상황극을 실시한 후, 참가자들이 돌아가면서 느낌을 이야기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배역을 정하여, 이 상황에서 바라는 어머니의 모습을 역할극으로 묘사해본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소통에서의 문제점을 생각해보고 앞으로 부모(자녀)와의 의사소통에 대해 다짐의 시간을 갖는다.</p>
<p>종결: 1. 부모-자녀간, 부부간, 가족 내의 모든 갈등은 의사소통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인식시키고, 인간관계의 핵심은 의사소통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 부모-자녀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부모자녀 모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p>	
<p>준비물: 이름표, 활동지, 필기도구, 편지지.</p>	
<p>프로그램 전체의 종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로에게 편지쓰기: 본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자녀는 어머니에게 어머니는 자녀에게 새롭게 다짐한 점이나 고마웠던 점등을 편지로 쓰게 한 후 일주일 후에 발송한다.</li> <li>2.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평가를 위해 개인별 또는 집단별로 질적 인터뷰를 실시한다.</li> <li>3. 참가자와 교육자가 서로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나눈다.</li> </ol>	

“아무리 애들에게 공부도 중요하구 뭐두 중요하지 않은 다음에 또 하면 또 참석할거예요”(사례4의 모)

“친구들한테 이 프로그램에 참석했던 거 자랑하고 싶어요”(사례5)

2) 프로그램의 유익했던 단계나 활동

어머니들의 경우 모든 단계가 유익했지만, 3명은 '개방적인 의사소통' 단계를, 2명은 '세대차이의 수용' 단계를, 그리고 1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 단계를 가장 유익했다고 응답했다.

한편 청소년자녀들은 각각 3명씩 '개방적인 의사소통' 단계와 '세대차이의 수용' 단계를 가장 유익했다고 응답하여, 청소년자녀와 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의사소통과 세대차이에 대해 새롭게 배우고 느낀 점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프로그램이 끝난 후의 질적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의 다짐을 질문했을 때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대화를 위한 노력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위한 노력 등을 언급하였던 점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의사소통 시간에 그림을 가지고 설명할 때 내가 열심히 설명해도 다들 못 알아들으니까 정말 답답

하더라도요. 그러니 얼굴보고 눈 마주치고 대화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을 수 있어서 5단계가 가장 인상에 남아요”(사례5의 모)

“저랑 엄마랑 살아온 과정이 틀리기 때문에 세대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걸 그림으로 그려서 이해할 수 있었던 4단계가 제일 좋았어요. 세대차이의 원인을 확실히 알 수 있었거든요”(사례6)

“성에 대해 애하고 솔직하게 얘기하기 힘든데 솔직한 애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고... 빙고판으로 게임하면서 애들의 성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었던 '성' 단계가 유익했다고 생각해요”(사례2의 모)

### 3) 프로그램의 목표와 관련된 교육적 효과

#### (1) 청소년자녀의 자아존중감 향상

청소년자녀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본 프로그램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일차적인 지원자인 어머니의 애정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책임감 있고 활기찬 생활을 하는데 기폭제가 되리라 생각된다.

“제 의견을 말할 하면서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어요”(사례1)

“저는요 자신감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했는데, 여기 와서 내 생각도 많이 발표해 보구 그러니까 자신감도 생기구,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많은 약속도 했으니까 되게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구...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그게 가장 큰 소득이라구 생각해요”(사례3)

“엄마는 내가 싫은 줄 알았죠. 그리고 나를 포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와서 느낀 건데 그게 아니었어요. 나를 정말 사랑하시드라고요”(사례5)

나아가 청소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보다 자신감을 갖고 행동하리라는 다짐을 함으로써, 본 프로그램의 목표였던 ‘자아존중감의 증진’이 이룩되었다고 여겨져, 따라서 프로그램이 그 교육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는데, 떳떳하게 내 주장을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어요”(사례5)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진로도 그렇고 뒤편 내가 세운 계획에 대해서는요...”(사례6)

#### (2) 지금까지의 자녀양육방식에 대한 반성과 자녀에 대한 수용

어머니들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자신의 양육방식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이었음을 지적함으로써, 자녀의 발달과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어머니 역할로의 변화가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는 장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내 모습에 대해 반성했어요, 내가 너무 내 틀에 끼워 맞추려고 했던 거요, 항상 제가 고정관념 속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 제 생각만 주입식으로 강요했던 것 같아요. 애가 갈 길을 내가 정해 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사례2의 모)

또한 어머니들은 지금까지의 자녀양육에 대한 반성과 함께 개방적인 대화를 통해 자녀와의 관계개선을 다짐함으로써, 본 프로그램을 통해 어머니들은 자녀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바람직한 어머니 역할 상을 새롭게 구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명령하구 바라는 엄마였는데... 앞으로는 딸을 이해하면서 자기가 하고픈 일에 적극적으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엄마가 되도록 노력해야겠고요. 애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긍정적인 면을 보고 칭찬해주려고요...”(사례4의 모)

“내가 먼저 아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어요...”(사례3의 모)

#### (3) 성에 대한 서로간의 인식 차의 수용

청소년들은 엄마와 함께 성·이성교제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었던 점에 대해 높은 가치를 두었으며,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성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에 높은 가치를 두었다.

“성교육 같은 거 처음에는 엄마랑 같이 하나니까 이상했는데... 서로 생각을 말하고 같이 받아들이구

그러니까 편하구 좋았어요”(사례4)

“성교육을 원래 학교에서만 하잖아요... 근데 엄마랑 같이 정확히 아는 것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엄마랑 같이 한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했던 게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두 몰랐었던 것 알게 되구 엄마가 저런 생각을 하구 있었구나. 그런 것도 알게됐고요...”(사례5)

“애하고 성에 대해 잘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애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정도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니 무조건 부정적으로 얘기하거나 모른척 할 일은 아니고 애들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사례1의 모)

따라서 청소년자녀와 어머니가 특히 세대차이를 많이 느끼고 갈등을 많이 겪는 이성교제와 성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서로가 솔직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성에 대해 생각의 폭을 넓히고 성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를 수용할 수 있는 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 (4) 세대간 이해증진과 의사소통의 중요성 인지

먼저 청소년자녀와 어머니가 공동으로 느낀 긍정적인 점 중 특히 강조하였던 점은 어머니와 자녀가 쌍으로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여러 주제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엄마랑 여러 가지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 그게 좋았어요”(사례1)

“엄마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엄마에 대해 부정적이었는데 그게 바뀌었고, 엄마를 더 많이 알게 됐어요...”(사례5)

“정말 많이 배우고 가고 애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엄마들은 항상 애들에 대해 궁금한데 그걸 이렇게 풀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 궁금증을 채울 수 있었던 게 너무 좋았어요...”(사례5의 모)

즉 같은 주제를 놓고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어머니나 자녀 모두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소중하고도 소중한 경험이었던

고 이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었으므로, 본 프로그램이 세대를 함께 교육하고자 했던 의도가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과 어머니는 부모-자녀간의 갈등의 근원이 되는 세대차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서로가 상대를 수용하였으며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교육을 받으면서 느낀 점은 엄마가 자라는 세대나 그랬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으니까, 여러 면에서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사례4)

“이런 식으로 자기네 감정표현하구 이려는 거를 사실은 몰랐는데 여기 와서 저는 너무나 많이 새로운 걸 느꼈어요... 저는 사실 어저께두 성교육 같은 것두 애들이 엄마 앞이라서 얘기 잘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애네들이랑 나랑은 세대가 틀리다는 거 그걸 인정 안 할 수 없더라고요...”(사례1의 모)

“가장 가까운 사이가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대화는 가장 없는 게 엄마잖아요.. 서로가 터놓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알게됐어요”(사례6)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대화를 제대로 하기 위해 서로가 노력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사례3의 모)

따라서 관계개선과 증진의 핵심이지만 그 중요성을 인식할 기회가 없었던 의사소통에 대해 청소년자녀와 어머니 모두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대차이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남으로써 본 프로그램은 부모자녀간 갈등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주었을 뿐 아니라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어머니와 자녀간의 친밀감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여겨진다.

나아가 청소년자녀들은 어머니와의 개방적인 대화의 중요성과 세대차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앞으로는 어머니의 입장을 배려하는 자세와 함께 어머니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짐함으로써, 본 프로그램이 청소년기 가족의 화합을 위한 장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도 엄마 입장이 되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요. 거의 내 입장만을 생각했던 게 사실이에요. 이제 는 될 수 있으면 행동할 때 엄마 입장도 이해하도록 노력하려고요..."(사례4)

"엄마한테 제가 너무 상처를 잘 줬던 것 같다는 반성을 했어요. 친하다는 걸 핑계로 말도 막하고 너무 나 편한대로 했던 것 같아요. 좀 거창하지만 이제 엄마를 존중하는 거 그런 노력을 해야할 것 같아요. 말 한마디라도 공손하게 하고 엄마가 하는 얘기도 열심히 듣고요..."(사례5)

이상의 프로그램 목표와 관련된 교육적인 효과 이외에도 기대치 않은 교육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먼저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또래집단 속에서의 자녀의 활동을 통해 자녀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었던 점을 언급함으로써, 본 프로그램이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가졌던 편견을 불식시키거나, 자녀의 장·단점에 대해 정확히 판단함으로써 앞으로의 자녀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귀중한 정보를 수집하는 장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나와서 보니까 좀 더 활발하게 사회성을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 엄마로서 그런 부분을 키워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사례2의 모)

"저는 항상 집에서는 부족한 거 같아서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애네들 또래 애들끼리 모인데서 보니까 또 부족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장점도 많이 보이고요..."(사례3의 모)

#### 4) 프로그램에 대한 바람과 제언

청소년자녀와 어머니 모두 시간이 짧았던 것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시간을 연장하여 어머니와 자녀가 갈등을 겪고 있는 소비생활, 예절교육 등 좀 더 다양한 영역을 다루었으면 하였다.

"소비생활도 다르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니까 엄마가 생각하는 구매개념과 애들이 생각하는 구매개념은 좀 틀려거든요. 그런 거를 함께 하면 하는 바람이구요..."(사례5)

"요즘 청소년 애들 버릇이 없어요... 예절, 인사법이 라든지 간단하게 차를 한 잔 마시더라도 그런 방법 같은 것도 교육을 시켰으면 해요..."(사례4)

또한 청소년들은 참가자들끼리 충분한 레포형성

이 된 후에는 첫 단계로 '자아존중감' 실시해도 무방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자아존중감' 단계가 어렵고 심각한 부분이므로 단계의 수정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차후에 본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는 레포형성을 위해 충분히 시간을 분배하거나, 참가자들의 분위기를 고려하여 단계를 수정해서 실시하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교시 때 너무 머리쓰는 일이 많았어요. 첨에 조금 어색했는데 갑자기 심오한 주제를 쥐가지구 솔직히 좀 어색했던 것 같아요"(사례5)

한편 어머니들은 본 프로그램을 학교교육과 연계 시킴으로써 세대 상호간의 이해증진을 통해 청소년 자녀들의 건전한 발달을 돕고 가족 간의 친밀감 향상에 기여해야 함을 주장하여, 이를 위한 연구자들의 노력과 함께 교육현장에서의 교사들 특히 학교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의 협조가 요망된다.

"하면서 느낀 게 애들끼리 캠프, 극기훈련 학교에서도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애들만의 캠프를 보내는 거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엄마던지 아빠던지 자리를 함께 마련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니까 이런 걸 학교에서 정말 정규교육과정에서 했으면 너무 좋겠어요"(사례5의 모)

"봄방학 때나 학기말 시험보고 나서 시간 때우기 수업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프로그램 하면 애들에게도 엄마에게도 얼마나 좋아요... 학교와 연계해서 실시하면 엄마들도 많이 참석할 거구요"(사례4의 모)

또한 어머니들은 교육의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추후교육과 추후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다음에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 때의 그 변화한 모습의 확인이 저는 참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한 약속도 중간에 한번씩 체크하거나 그렇게 하면 책임감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애들이 자기가 원했던 대로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나. 그런 거가 체크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사례4의 모)

"애들이 시간대기가 힘들겠지만 내용을 조금 심화시키거나, 이번에 시간이 부족해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음에 다시 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사례1의 모)

그리고 어머니들은 공통적으로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남자이지만.. 아빠가 아들하구 잘 통한다구 그러면서도 사춘기가 되니까 아빠 두 어떻게 해결을 못하더라구요... 이번처럼 아버지 하기도 시간이 필요해요...”(사례2의 모)

“아빠가 더 애들하고 얘기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그러니 애들은 어려워해서 얘기도 잘 못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중간에서 힘들고요... 정말 필요하건 아빠 하기의 교육이예요”(사례3의 모)

이상의 평가결과를 통해 볼 때, 본 프로그램은 청소년자녀와 어머니가 공동으로 세대차이를 수용하고 개방적인 대화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이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자녀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화합을 도모하고자 했던 본 프로그램의 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생각된다.

## VI. 결론 및 제언

청소년자녀와 부모간의 관계의 질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인으로서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모의 심리적 복지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청소년 개인적인 측면에 집중되어 있어서 생활 속에서 매일 접하는 부모와의 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었고,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들도 대부분 어머니만을 그 대상으로 한정하였었다. 그러나 한 세대의 일방적인 교육보다는 부모와 자녀 세대를 함께 교육하는 것이 상호간의 이해증진을 통해 그 교육적 효과가 더 높으리라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자녀와 부모 특히 자녀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어머니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였다.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중심으로 실시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조사결과와 청소년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5단계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1단계는 어머니와 자녀가 서로의 인정을 격려를 통해 자아 존중감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2단계와 3단계에서는 각각 청소년자녀의 당면과제인 진로와, 어머니와 많은 갈등을 겪게되는 성·이성교제에 대해 개방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서로간에 인식 차를 좁히고, 특히 어머니들이 자녀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였다. 4단계에서는 ‘세대차이’에 대해 다룸으로써 서로가 상대세대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장이 되도록 하였으며, 5단계에서는 인간관계의 핵심인 의사소통에 대해 다룸으로써 청소년자녀와 어머니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6쌍의 청소년자녀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1박 2일 동안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질적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자녀와 어머니 모두 어머니와 자녀가 쌍으로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여러 주제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 높은 가치를 두었다. 둘째, 청소년자녀와 어머니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차이의 불가피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서로가 상대를 수용하게 되었으며, 인간관계에서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달아 앞으로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본 프로그램은 특히 청소년자녀에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하는 장이 되었다. 넷째, 어머니들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귀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고, 자녀의 발달과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어머니 역할 상을 구축하였고 이를 다짐을 하였다.

이상의 평가결과를 통해, 부모자녀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화합을 도모하고자 했던 본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본 연구는 추후면접을 통해 교육적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되었는지 밝히지 못한 점과, 양적 평가를 통해 교육

전과 교육 후의 프로그램 효과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점등의 제한점을 갖는다.

이런 제한점과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앞으로는 부모와 자녀 양세대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 특히 어머니에 비해 대화가 부족하고 공동의 시간이 적은 아버지와 청소년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급히 개발하여 가족간의 유대감 증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자녀와 부모가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더라도 부모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참석하지 않는 한, 프로그램은 실시될 수 없으므로, 정부차원에서 매스컴을 통해 평생교육과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과 그 부모를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들을 학교의 특별활동시간이나 정규교과과정과 연계시킴으로써, 프로그램의 활용성을 높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다양한 지원과 인식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부모교육의 빈익빈 부익부현상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 부모의 프로그램의 참석을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재정적 지원이 시급하다.

## ■ 참고문헌

- 권이중(2000). 청소년교육개론 -신세대의 이해와 지도-. 서울: 교육과학사.
- 권이중, 남종길, 차경수, 최충욱, 최운실, 최운진(2001). 청소년교육론. 서울: 양서원.
- 김경신(1999). 가족관계와 청소년. 뉴 밀레니엄 시대의 가족과 청소년: 변화와 복지. 한국가족복지학회·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1-21.
- 김명자, 이정우, 계선자, 박미석, 박수선(2000). 새 밀레니엄에서의 청소년문화창조를 위한 생태학적 지원체계(II)-청소년자녀와 부모가 인정한 가족의 심리적 환경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9), 41-55.
- 김명자, 이정우, 계선자, 박미석, 송말희(2000). 새 밀레니엄에서의 청소년문화창조를 위한 생태학적 지원체계(I). 청소년의 발달과업 성취를 위한 프로그램 요구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8), 125-140.
- 김명자(1994). 대입 수험생 가족의 전반적 현황 및 문제. 한국가족학연구회편. 자녀교육열과 대학입시. 하우, 85-122.
- 김순옥(1997). 부모교육프로그램: 자녀와의 대화법. 한국가족관계학회 추계학술대회발표집. 가족생활교육의 과제와 전망, 47-64.
- 김순옥, 송현애(1998). 자녀와의 대화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모형개발 및 효율성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1), 93-119.
- 김애순, 윤진(1997). 청년기갈등과 자기이해.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김영희, 김운주, 박경옥, 이희숙, 김창기(2000).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의 일탈행동 예방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6), 149-169.
- 김용석, 박명숙(2000). 청소년문제행동의 공통요인으로서의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2, 83-106.
- 김은미(1999). 가정정보화와 사이버 가족. LG 커뮤니카토피아연구소 편. 정보혁명·생활혁명·의식혁명. 백산서당.
- 김현주(2001). 청소년과 대중스타. 미래인력연구총서. 청소년의 일상과 가족. 미래인력연구센터.
- 김희진, 김경호(1999). 건강가정과 신세대.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백양희, 최외선(1997). 환경변인 및 내적 통제력,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5(2), 33-47.
- 변화순(1997). 2010년 정보사회에서의 가치관의 변화. 정보와 저널, 4(2).
- 손승영(2001). 청소년의 학교생활과 가족. 미래인력연구총서. 청소년의 일상과 가족. 미래인력연구센터.



- 송인자, 김경혜(1999). 한국 가족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방향 탐색. *대한가정학회지*, 37(10), 11-25.
- 송정아, 윤명선(1997).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관계향상 프로그램 모형.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1), 71-82.
- 엄명용(2000). 비행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청소년비행 예측 요인의 발굴. *한국사회복지학*, 42, 254-289.
- 유은희(1998). 청소년자녀의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이론 및 프로그램-. *한국가족관계학회*편. 서울: 하우, 201-215.
- 유은희, 홍숙자(1998). 부모교육 프로그램. *대한가정학회지*, 36(1), 157-168.
- 이영숙, 박경란, 전귀연(1999). 가족문제론. 서울: 신정
- 이정우, 김명자, 계선자, 박미석, 정진희(2000). 새 밀레니엄에서의 청소년문화창조를 위한 생태학적 지원체계(II) - 한국 청소년 가치관 실태 분석 및 부모의 가치관과의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12), 2017-223.
- 이지현(1999). 청소년의 중년부모이해 프로그램. 서울여대 석사논문.
- 이춘재 외 8인(1997). *청년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전귀연(1996). 청소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체계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3), 137-155.
- 정영숙, 김영희, 박경옥, 이희숙, 채정현, 이종섭(1999). 청소년과 생활환경. *대한가정학회지*, 37(2), 176-197.
- 조홍식(1995). 가족 간의 문제인식 및 해결방법. 한국가족학회 춘계학술대회, 가족의 관계역동성과 문제인식보고서.
- 주은희(2001).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가족, 미래인력 연구총서. 청소년의 일상과 가족. 미래인력연구센터.
- 최규련(1996). 가족학적 관점에서 본 청소년문제와 대책. *대한가정학회지*, 34(1), 147-160.
- 한국사회학회편(1994). *한국사회의 세대문제*. 서울: 나남.
- 한국청소년개발원(1994). *청소년기 가족문제*. 연구보고서 94-5.
- 한국청소년학회 편(1999). *청소년학총론*. 서울: 양서원.
- 현은민(2000). 청소년의 가출: 가족적, 개인적 요인 및 대처행동의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8(2), 41-55.
- 동아일보. 1999. 11. 16일자.
- Anne, C. F., L. Steinberg. & Sella, E., B. (1999). Adolescents, well-being as a function of perceived interparental consistenc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3), 599-610.
- Baumrind, D. (1993). The average expectable environment is not good enough: A response to Scarr. *Child Development*, 64, 1299-1317.
- Cicchetti, D., & Toth, S. S. (1998). The development of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Psychologist*, 53, 221-241
- Daniel. T. L. (1997). The relation of family functioning to adolescent psychological well-being, school adjustment and problem behavior.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8(4), 467-479.
- DeBaryshe, B. D., Patterson, G. R. & Capal., D. M (1993). A performance model for academic achievement in early adolescent boys. *Developmental Psychology*, 29, 295-314.
- First, J. A., & Way, W. L. (1995). Parent education outcomes: Insights into transformative learning. *Family Relations*, 44, 104-109.
- Gecas, V., & Seff, M. A. (1990). Families and adolescents: A review of the 1980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941-958.
- Lamanna, M. A., & Riedman, A. (1994). *Marriage and family: Making choices and facing changes*.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Roberts, T. W. (1994). *A systems perspective of parenting: The individual, the family and the social network*.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Schvaneveldt, T. D., & Young, M. H. (1992). Strengthening families: New horizons in family life education. *Family Relations, 41*, 385-389.
- Small, S. A., & Eastman, G. (1991). Rearing adolescents in contemporary society: A conceptu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responsibilities and needs of parents. *Family Relations, 40*.
- Stice, E., Barrera, M. & Chassin, L. (1993). Relation of parent support and control to adolescent's externalizing symptomatology and substance use: 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curvilinear effects. *J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1*(6), 609-629.
- Umberson, D. (1989). Relationships with children: Explaining parent's psychological well-being.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999-1012.

---

(2002년 10월 28일 접수, 2002년 12월 20일 채택)